

독일 A+A 출장 결과 보고

I. 출장 개요

1. 목적

독일 전시 전문업체인 메세 뒤셀도르프 전시회 관람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독일 연방 연합회(Basi)의 협력 파트너국가 요청에 따른 수용여부 검토를 위함

2. 추진 일정

○ 출장기간 : '13. 11. 4(월) ~ 11. 9(토) [5박 6일]

- 세부 일정

날짜	시간	내용
11.5	10:30~12:30	A+A 오프닝
	14:00~17:00	독일/터키 산업안전회의
11.6	09:00~	ILO콩그레스 개막
	16:00~18:00	Ms Horn 면담

○ 출장자: 문화홍보실 서문교 외 2

○ 출장지 : 독일 뒤셀도르프 “메세 뒤셀도르프(Messe Dusseldorf)”

II. 출장내용

○ 회의참석자

- 공단 : 문화홍보실장 서문교, 국제협력팀 이인섭 부장
- 독일 : Messe 총괄이사 Ms Horn, Basi 기획관리이사

○ 회의내용

- 독일 측 두기관(Messe 및 Basi)의 성격 및 주요기능
- 파트너 국가의 성격 및 금년 파트너 국가인 터키와 협력관계
- 한국을 파트너 국가 후보로 선정 하게된 이유 등

III. 출장 결과

○ 협력파트너 국가 요청에 따른 수용여부 판단

- 기존 파트너 국가들이 독일로부터 일방적 시혜를 받는 관계라면 독일은 한국을 Win-Win할수 있는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음.
- 우리공단 입장에서 독일의 파트너국가로 된다면 독일의 안전보건에 관한 선진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.
- 독일 측에서는 한국이 2015년 독일 전시회 때 독일의 파트너국가로 할 것인지 여부를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결정하고, 협력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독일 측과 상호 토론을 거쳐 검토하면 될 것임.

○ 파트너 국가로 된 경우 공단의 협력주체

- 전시전문업체인 Messe는 보조이고, 안전보건관련 76개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Basi가 독일 협력주관예상, 따라서 공단도 국제협력

팀에서 협력주관

<참고>

1. Messe Dusseldorf 및 Basi의 기관현황

□ 산업안전보건 독일 연방 연합회(Basi)

○ 구성

-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76개의 기관 및 최고의 국가 조직들로 연합
- 특히, 연방 정부 및 지방 정부, 정부기관, 연합체, 사고 및 건강 보험업체, 전문적·과학적 연합체 등을 포함

○ 업무

- 회원들간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
-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공공의식,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지역활동, 국제 경험 공유 및 학교, 도로안전 및 환경보호 등의 타분야와의 협력

○ 역할 :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, 보건 및 작업장 설계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국가 및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모임인 세계 산업안전보건대회(A+A)를 조직하는 것임.

○ A+A : 다음의 4개 분야로 구성

- 세계 무역박람회
- 세계 대회
- 안전 미팅
- A+A 포럼

□ 메세 뒤셀도르프(Messe Dusseldorf Group)

○ 설립 연혁

- 1947년 뒤셀도르프에 설립된 북서독일 전시회사(North West German Exhibition Company)로 출발
- 현재는 세계 10대 영업이익율을 올리는 무역전시회 조직회사로 발전

○ 구성

- 50개 국제 무역박람회로 구성
- 5개분야*에서 1,500명의 전문가와 활동

* 5개분야 : ①공장, 기계 및 기타 자본재, ②소매, 숙련공 및 서비스, ③의료시스템 및 건강관리, ④의류 및 생활 양식, ⑤여가

○ 전시회 특색

- 전시자의 50%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
- 방문자의 3분의 1이 외국인
- 판매액의 40%는 러시아, 체코 및 중국을 주로 하는 해외로 판매

2. 파트너국가의 성격 및 금년 파트너 국가인 터키의 활동

○ 파트너 국가의 성격

A+A 전시 전문업체인 메세 뒤셀도르프와 안전보건 독일 연방 연합회인 바시는 6년 전부터 매 2년마다 안전보건 파트너국가를 정하고 파트너 국가와 안전보건을 포함한 경제, 사회 등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교류 및 협력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.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정부에 정책건의 및 국가간 사회 경제적 교류확대를 도모하고자 안전보건파트너 국가를 운용하고 있으며, 지금까지 헝가리(제1회), 러시아(제2회), 터키(제3회)등 3회에 걸쳐 파트너국가를 지정하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

○ 금년파트너 국가인 터키의 활동

금년 2013년은 터키가 파트너 국가로 선정되어 A+A 전시회에 터키노동부차관 독일노동성 차관보가 기조연설을 하였고, 안전보건 교류협력 범위와 방법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하였으며, 이 세미나에 터키대사 등 대표단 20명이 참여 하였으며, 터키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공간 40 m²을 **Messe Dusseldorf**에서 터키에 무상으로 제공.